

들어가는 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설립자가 동석기 전도자(선교사, 목사)라는 사실에는 다른 견해가 있다고 반론(反論)을 제기(提起)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석기보다 더 체계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남한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곳곳에 설립하고, 환원 운동을 전개(展開)했던 강명석 전도자(선교사, 목사)…….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 받은 두 번째 조선인 선교사였던 강명석 전도자는 대한민국의 환원 운동 선구자(先驅者)였다. 그가 남한지역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자(開拓者)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석기 전도자보다 인지도(認知度)가 낮은 형편이다.

동석기 전도자가 1930년 11월 29일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으로 북한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강명석 전도자는 남한지역에서 1936년 12월 6일(주일)부터 직접 선교(교회 설립), 교육 선교(전도자 양성), 토론 선교, 문서선교(문필활동)를 통한 환원 운동을 다각도(多角度)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강명석 전도자의 활동에 대하여 필자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자들에게 자료(資料)를 제공해 왔었다.

(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지도자 강명석의 생애와 사역」, 그리스도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초기생애에 오류가 많음

(2) 「강명석 전도자의 환원 사상: 역사상으로 본 기독교회의 정체를 중심으로」, 『복음과 교회』 제21집, 그리스도대학교 학술연구소.

(3) 「회복운동가 강명석의 생애와 회복운동사상」, 『인문과학논집』 제27집,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 「그리스도의 교회 남한지역 개척자 강명석의 초기생애(1)~(5)」, 『참빛』.

2022년은 동석기 전도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환원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일치 운동을 시작한 지 제92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강명석 전도자에 의해 남한지역에 환원 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개된 지는 제86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남한지역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자 강명석이 4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夭折)한 지는 제78주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강명석 전도자가 우리의 기억(記憶)에서 지워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필자는, 그를 추모(追慕)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90년사의 하나인 『90년의 발자취』, 제2집 강명석 편”을 2019년에 출판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필자의 글들을 모아 수정, 보완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미국 애빌린 기독교대학교(Abilene Christian University) 강삼정 박사(Dr. Samjung Kang-Hamilton)와 일본 이바라키 기독교대학교(Ibaraki Christian University) 유키 오바타 박사(Dr. Yukikazu Obata)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두 분 교수들께 감사를 드린다.

강명석 전도자 제78주년 추모식을 앞두고

2022년 4월 8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연구소 연구실에서

영흥(永興) 서재룡(徐才龍)